

조현준의 ‘가슴 뜨거운 여름’... 폭염 속 이웃나눔 실천

(효성그룹 회장)



마포구 취약계층 500세대 방문해 쌀 1만kg·수박·과일 등 직접 전달 13년째 쌀 기부... 누적 1.5만포대 “이웃을 위해 사회적 책임 다할 것”



지난 1일 조현준 효성 회장(왼쪽 첫번째)이 서울시 마포구 성산동 의 취약계층 세대를 방문해 시원한 수박과 농촌 판로 지원을 위해 함안에서 구입한 쌀을 전하고 답소를 나누고 있다. /효성

효성 조현준 회장이 폭염으로 힘겨운 여름을 나고 있는 마포구 취약계층 이웃을 방문해 사랑의 쌀을 전달하고 수박을 함께 먹으며 건강하게 여름을 보내기를 응원했다.

효성은 전국 기온 관측을 시작한 111년 만에 최고 기온을 기록한 지난 1일 조

회장과 임직원으로 구성된 효성나눔봉사단 20여명이 서울 성산동 임대 아파트 등 마포구 이웃 500세대를 방문해 1만kg의 쌀과 과일 등을 전달했다고 2일 밝

혔다. 효성은 지난 2006년부터 13년째 매년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마포구 주민에게 ‘사랑의 쌀’을 전달해왔다. 매년

1000포대 이상의 쌀을 전달, 누적으로는 1만5000포대를 넘어섰다.

사랑의 쌀은 효성이 농촌의 안정적인 판로를 열어주기 위해 자매마을인 경남 함안에서 지난 2011년부터 지속적으로 구입해오고 있다. 자매마을과의 상생은 물론 마포구 이웃들에게 품질 좋은 쌀을 제공하는 일석이조의 효과를 거두고 있다.

조 회장은 주민들과 만난 자리에서 “기업인으로서 경영과 투자에 매진해 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겠다”며 “이웃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드릴 수 있도록 사회적 책임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날 조 회장을 만난 마포구 이웃 주민은 “유례없이 30도가 넘는 날씨가 이어져서 지쳐 있었는데 효성의 작은 도움이 여름을 나는 큰 힘이 될 것 같다”고 전했다.

한편 효성은 마포구 등 국내 사업장이 속한 지역 사회와 협력해 사랑의 쌀과 김장김치, 생활품을 정기적으로 후원하고 있다. 취약계층 학생을 위한 장학재단 후원과 어린이 과학교실을 운영 중이다.

또 장애인과 취약계층의 일자리 창출과 자립을 위해 재활용품 판매점인 ‘굿월스토어 효성1호점’의 설립 및 운영을 지원했으며 장애인을 위한 사회적기업도 지원하고 있다.

장애 어린이 음악교육과 장애아동으로 이뤄진 오케스트라도 후원하고 있으며 문화유산 보호를 위해 창덕궁 환경정화활동도 진행 중이다. 이외에도 6.25참전용사 후원, 1사1묘역 봉사활동, 1사1병영 후원, 군부대 북카페 지원 등 호국보훈 활동에도 꾸준히 참여하고 있다.

/김유진 기자 ujin6326@metroseoul.co.kr

“이탈자 막아라”... 알뜰폰, 게임 등 콘텐츠로 20·30 ‘정조준’

CJ헬로 인기게임 전용 요금제 출시 KT엠모바일 데이터 선택형 요금제 에넥스텔레콤 ATM기기사 폰 개통



모델이 ‘FIT 12 요금제’ 출시 소식을 알리고 있다. /KT엠모바일



모델이 ‘모두의마블 요금제’ 출시 소식을 알리고 있다. /CJ헬로

가입자 이탈이 가속화되고 있는 알뜰폰 업계가 키즈폰, 게임 전용 요금제를 출시하는 등 미래 세대를 노리며 돌파구를 찾고 있다.

2일 CJ헬로는 게임사인 넷마블과 제휴를 맺고 기존 요금제보다 20% 저렴하고, 인기 게임 아이템을 제공하는 요금제를 내놨다. 헬로모바일 상품 경쟁력과 넷마블 게임 콘텐츠 시너지를 활용한 차별화 전략으로 신규 수요를 창출할 계획이다. 게임 콘텐츠와 결합한 전용 서비스를 출시하며 청소년·청년층을 겨냥한 차별화 행보에 박차를 가한 것으로 풀이된다.

‘모두의마블 요금제’는 총 9종(유심 요금제 5종, 단말 요금제 4종)으로 고객들은 본인의 실제 사용량에 맞는 합리적인 요금제를 선택할 수 있다. 특히 월 2만원대에 데이터 10GB(음성 100분·문자 100건)를 이용할 수 있는 ‘모두의마블 USIM 10

GB’를 비롯한 유심 요금제는 동일한 스펙의 헬로모바일 요금제보다 20% 가량 할인해 제공한다. 모두의마블 요금제에 가입하는 모든 고객에게는 2900개의 ‘다이아’ (게임머니)를 지급한다.

CJ헬로는 ‘모두의마블 유심 요금제’ 4종을 지난 1일 출시하고, 내달 초까지 전용 요금제를 차례로 선보일 계획이다.

같은 날 KT엠모바일은 소셜네트워크 서비스(SNS)와 데이터 사용량이 많은 청년층을 겨냥해 고객이 원하는 음성과 데이터를 맞춰 쓸 수 있는 FIT 12 요금제를 내놨다. 알뜰폰 고객들이 가장 많이 사용

하는 음성 4개 구간(50분, 100분, 150분, 200분)과 데이터 3개 구간(2.4GB, 3.5GB, 5.0GB)을 제공하는 12가지 선택형 유심 요금제다. 기존 요금제 대비 데이터 제공량을 강화한 것이 특징이다.

알뜰폰 업계는 데이터 요금제를 강화하고 젊은 세대가 즐기는 게임 특화 요금제를 내놓는데 이어 알뜰폰에 대한 부정적인 이미지를 쇄신하기 위해 알뜰폰의 새 명칭 공모에도 나선 바 있다.

유통 채널도 다변화하고 있다. 에넥스텔레콤은 GS편의점, 다이소에 이어 최근 지하철 등에 설치돼 있는 ATM기기사

도 개통이 가능한 서비스로 틈새시장을 공략하고 있다.

알뜰폰 업계가 이같은 새 시도를 이어가는 이유는 최근 정부의 가계통신비 인하 정책과 맞물려 가입자 이탈이 가속화되고 있기 때문이다.

지난 1일 한국통신사업자연합회에 따르면 7월 번호이동 건수는 48만70533건으로 집계됐다. 전년도와 비교해 약 15만 가량 줄어든 수치다.

문제는 가입자 순증을 기록한 이동통신사에 비해 알뜰폰은 가입자를 이동통신사에 내주며 지속적으로 가입자 감소 추세를 보이고 있다. 특히 지난해에는 이동통신 3사에게 모두 가입자를 뺏겼다.

업계에서는 알뜰폰의 시장점유율 확대를 위해서는 서비스 활성화 등으로 이동통신사와 차별화 된 시도를 통해 생존 전략을 마련해야 한다고 보고 있다. 특히 주력 타깃층인 5060세대 보다는 고가 요금제에 가입하는 경향이 높고, 미디어 콘텐츠를 즐기는 1020세대의 입맛에 맞는 서비스로 고객 잡기에 나서야 한다는 분석이다.

/김나인 기자 silkni@



LG전자가 2일 프리미엄 무선청소기 코드제로 A9에 새로운 컬러인 빈티지와인과 아이언그레이를 적용한 신제품 2종을 출시했다. /LG전자

LG전자 ‘코드제로 A9’ 와인·그레이 ‘새 컬러’

LG전자는 코드제로 A9에 각각 빈티지와인과 아이언그레이를 적용한 신제품 2종을 출시했다고 2일 밝혔다.

새로운 컬러 2종은 고급스러우면서도 세련된 느낌으로 집안의 다른 가구들과도 잘 어울려 인테리어 효과를 높인다. 코드제로 A9의 색상은 기존 블랙, 판타지실버, 보헤미안레드 등을 포함해 모두 5가지로 늘어났다.

LG전자는 지난해 6월 코드제로 A9을 국내 시장에 처음으로 발표했다. 이 제품은 높은 인기를 얻으며 무선청소기 시장에서 빠르게 자리잡았다.

코드제로 A9은 해외시장에서도 순조로운 판매를 보이고 있다. 올해 초 대만, 호주, 이스라엘 등에 코드제로 A9을 출시했는데, 이들 국가에서 LG 무선청소기는 지난해보다 판매량이 2배 늘었다.

LG전자는 코드제로 A9에 적용하는 핵심 기술을 자체 개발했다. 일반적으로 모터는 크기가 커질수록 강한 흡입력을 내는데 LG전자는 모터 크기를 줄이면서도 강력한 흡입력을 실현했다. 코드제로 A9의 스마트 인버터 모터 P9은 지름이 9cm에 불과하다. LG전자는 청소기용 인버터 모터를 10년간 무상 보증하고 있다.

기존까지는 고객들이 청소기를 사용하다 보면 배기필터 쪽에 먼지가 쌓이고 공기의 흐름이 막힌다. 따라서 처음보다 흡입력이 떨어지는 현상을 느끼는 일도 있었다. 코드제로 A9의 2중 터보 싸이클론은 빨아들인 공기 속의 미세한 먼지까지 분리해줘 공기 흐름을 원활하게 해 흡입력을 유지시킨다. /안병도 기자 catchrod@

현대글로벌비스 휴가철 맞아 고속도로서 안전운전용품 세트 증정

현대글로벌비스가 휴가철을 맞아 8월 2일 강원도 인제 내린천휴게소, 3일 강원도 강릉 옥계휴게소에서 운전자들에게 안전운전용품 세트를 무료로 배포한다.

이번 행사는 현대글로벌비스가 나들이를 떠나는 고속도로 이용객과 장시간 차량을 운전하는 화물운전자의 안전운전을 도모하기 위해 마련했다. 서울양양고속도로에 위치한 내린천휴게소는 상·하행선에서 모두 진입 가능한 휴게소다.

현대글로벌비스는 이들에 걸쳐 총 1만여 개의 안전운전용품 세트를 배포할 예정이다. 안전운전용품 세트는 졸음방지용 껌과 아이스팩, 휴대용 목베개, 차량용 햇빛 가리개 등 총 6종으로 구성됐다. 차량에서 간편하게 사용할 수 있는 품목들로 운전자들의 편의성을 높였다. /양성운 기자

“연료 센서 오류”... 페라리·람보르기니 ‘리콜 수모’

수입車 10종 270대 제작결합

BMW·페라리·람보르기니 등 수입차 10종, 270대가 제작결합으로 자발적 리콜을 한다.

2일 국토부에 따르면 BMW가 제작한 고성능 모델 M5 153대는 연료탱크의 연료레벨 센서가 연료 호스와 간섭을 일으켜 정상 작동하지 않을 가능성이 확인돼 리콜된다. M5는 이 문제로 연료가 모두 소진되더라도 계기판에는 연료가 있는 것으로 표시돼 운전자가 연료량 확인을 못 해 위험한 상황이 발생할 우려가 제기됐다.

에프엠에이가 수입·판매한 페라리 캘리포니아·458 이탈리아·458 스파이더·F12 베를리네타 등 5개 차종 78대는 폭발 위험이 제기된 ‘다카타 에어백’ 장착으



리콜되는 람보르기니 차종. /연합뉴스

로 리콜된다. 일본 다카타사가 제작한 에어백은 충돌 사고로 에어백이 펼쳐질 때 인플레이터(팽창장치)의 과도한 폭발력으로 금속 파편이 튀면서 운전자가 다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됐다.

지금까지 세계적으로 다카타 에어백 관련 사고로 최소 23명이 목숨을 잃고, 230명 이상이 부상한 것으로 보고됐다. 이 때문에 다카타 에어백은 ‘죽음의 에어백’으로 불리며 2013년부터 세계적으로 1

억대 이상 리콜이 이뤄지고 있다.

아우디폭스바겐코리아가 수입·판매한 람보르기니 아벤타도르 LP700-4Coupe 등 4개 차종 39대는 엔진 제어 프로그램 오류로 리콜된다. 이들 차량은 공회전 상태에서 연료 공급 유량 조절 장치(퍼지 밸브)가 제 기능을 하지 못해 주행 중 시동이 꺼질 가능성이 확인됐다.

해당 제작사는 리콜 대상 자동차 소유자에게 우편 및 휴대전화 문자메시지로 시정방법 등을 알려야 한다. 리콜 시행 전 자비로 수리한 경우는 제작사에 수리비 보상을 신청할 수 있다.

국토부는 자동차 제작결합 정보를 수집·분석하는 자동차리콜센터를 운영하고 있다. 홈페이지에서 차량 번호를 입력하면 리콜 대상 여부와 구체적인 제작결합 내용 등을 확인할 수 있다. /정연우 기자 ywj964@